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본격적인 준비 착수

제 8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가 오는 5월 19일(월)에 시작된다.

우리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한국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에서는 해미디 타문화권의 영향력 있는 교계지도자를 초청, 신학적 지식과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과 모습을 보며 자국복음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김치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 8차를 맞는 올해의 김치신학세미나에는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권 목회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치신학세미나 준비위원회는 지난 주 이미 초청장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제 8차 김치세미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김치신학세미나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와 강의를 확정하여 이를 발표하였다(확정된 강의와 강사는 4면 참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겠으나 김치신학세미나는 현지에서 활약하는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음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자국복음화를 하도록 하자는 선교전략이다. 지난 해까지 김치신학세미나에 참석자들은 새벽기도회 등

한국에서 배운 교회 성장과 갱신의 원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 적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보고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김치신학세미나에는 동구권, 중국어권, 힌두교권, 아프리카, 러시아, 회교권, 오세아니아와 그 주변국 목회자들이 참여하였다.

▶ 사순절 묵상

고통에 대처함에 대하여

“내 아들이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겪은 고통과 거룩한 성도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불평을 멈추도록 하라.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느니라(히12:4). 너희가 받은 고통이란 나를 위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강한 유혹과 심한 환난을 여러 형태로 당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니라(히11:37).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무겁고 심한 고통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런 후에도 너희의 고통이 작게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에게 닥친 환난이 크던 작던 간에 그 모든 시련에 대해 인내하기를 배우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크면 클수록 너희는 더욱 더 지혜롭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더욱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제게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가능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제가 조금 밖에 인내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오며, 가벼운 역경이 닥쳐왔을 때에도 쉽사리 넘어지고 낙망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을 위하여 시련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는 것은 저의 영혼을 위하여 참으로 필요한 것이옵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97 상반기 장학생 선발

오늘 찬양예배 시 87명에게 장학금 전달

장학위원회(위원장:윤봉준 장로)에서는 97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다.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에서는 교구담당 교역자 혹은 교회학교 지도 목사의 추천을 통해 장학금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였다.

또한 100교회운동을 통해 결연한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교회 내 장학생 42명과 농어촌 목회자 자녀 4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총 8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선발한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내 장학생 *

대학생 (신학생)

김찬열 박창수 이진규 소원섭 신천규
이승찬 이원준 윤진영 김윤수 임은주
백송희 홍진선 정희선 김 진 (14명)

고등학생

채수길 김중화 진범석 백 훈 주정주
강경득 홍석현 곽소은 오정주 서현아
유명진 곽정임 박혜리 김양연 고은혜
(15명)

중학생

최규득 이병재 이승환 김재환 김태운
신혁수 김다혜 김은경 임지혜 고은정
김윤정 김다희 김은정 (13명)

*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 *

대학생 (신학생)

고명균 구은진 권신일 김 관 김성준
김유진 김은성 김지영 백종석 서영제
심에스터 안애림 엄지영 오도원 오진선
이나비 이종순 전준봉 정소영 장수아
최 용 (21명)

고등학생

김 류 남기명 박영선 심어진 유안나
이경진 이요셉 장성국 최다윗 최 현
(14명)

중학생

김한나 류성순 박사라 박현우 선종평
신일향 오신영 이가은 장신행 장은화
(10명)

창세기 강해



“나를 전지시고 기르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5, 16절)

이종운 목사

건져내고 기르는 일은 목자의 사역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80편에서는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 “고 하였고, 이사야 40장에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0:14 - 15).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라고 불렀으며(벧전2:25), 히브리서에서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 시기를 원하노라”고 기원하였습니다(히13:20, 21).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말씀들의 묘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처음 부른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1.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자로 일했던 야곱은 목자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로서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자신이 목자로서 많은 실패를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목자로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고 요셉과 자손들에게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2.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은 베엘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

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28:13 - 15).

그 약속 중에서 어떤 것은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13:5). 성경에 이같은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3. 우리는 작은 목자

우리는 위대하신 목자장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에게 배워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죽으셨고(요10:11), 큰 목자로서 양을 위해 부활하셨으며(히13:20, 21), 목자장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한 작은 목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재림하실 것입니다(벧전5:4).

선한 목자는 신실합니다. 어렵고 위험해도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합니다. 우리도 주인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신실한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양을 쉴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양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합니다.

선한 목자는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벧전5:1 - 4).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에겐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며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모범이 될만한 선한 목자는 못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연약하고 부정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족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열심도 인내도 자기 희생도 없지만 우리를 구하시고 이끄시는 목자장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전략의 위기”

전쟁을 하는 군인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작전을 세워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도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목표설정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방법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략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생활의 전략을 삼는 것이다. 믿음으로 흥해가 갈라졌고 어리고 성은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악한 영도, 세상의 불의도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은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의 도리를 실천하므로써 땅에 떨어져 썩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이야기

“신앙 1세대의 고달픔”

김민철(청년부)

오늘은 부끄러운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된 지도 벌써 해수로 10년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말씀과 기도, 전도가 필수적인데 10년동안 그것을 얼마나 했느냐고 묻는다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성경읽는 일에 대해서는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한 고등학교 시절에 심취해서 읽었던 정도가 거의 전부이고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안일의 극치를 달려 91년부터 지금까지 미처 한 번을 다 못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요.

전도를 논할라치면 더욱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은 겨우 두 세 명에 불과한데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아직 부모님에게조차 전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제 신앙조차 겨우 지켜나가는 형편이고 보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도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다 못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굴곡이 워낙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 쉬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사람은 적어도 가족 중에는 없습니다. 동생이 교회에 다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신앙 1세대의 고달픔입니다. 집안에서 처음 믿기 시작한 신앙 1세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자없이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 공급하여 부모님과 형제들을 전도해야 할 판이죠. 때로는 이 사실이 서럽기까지 합니다.

군 복무 중인 제게 며칠 전 대학교에 다니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간다 싶더니 얼마 전부터 동생은 세미난지 뭔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일을 제대로 못지킨다는 등... 그런 동생을 보면서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화 내용은 그간 학교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내막이야 어떻게 마음이 착잡하고 '내 탓이로구나' 싶었습니다. 신앙면에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여린 동생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는데 동생을 위한 기도를 잊은지가 꽤나 오래 됐던 것입니다. 평소 동생을 만날 때마다 느끼던 불안에 대해 바로 바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계시지도 모르는 신앙 1세대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아무튼 오늘따라 심한 자책과 서글픔, 외로움 그리고 한편으로 밀려오는 위기감과 비장함, 결연하고 몽클한 그 무엇...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앙 1세대에게 주신 채찍인 것 같습니다.

옛날 회랍에 유명한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그의 출신의 조라함과 가문의 비천함을 비꼬아 모함을 일삼는 졸렬한 정치가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가문은 너희 대에서 끝나지만, 나의 가문은 나의 대에서 시작한다."

▶지난 주 우리 부서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목사”

서문석(집사, 장년부 교사)

장년부를 지도하시던 김영한 목사님이 공식적인 광고도 없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특별한 일이 있나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들렸다. 암에 걸렸는데 개복까지 했다가 더이상 수술도 못하고 덮었다는 것이었다. 혈색 좋고 젊은 목사님이 이럴 수가 하고 모두 의아해 했다. 아무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면회가 되지 않으면서 그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올해 새해가 되어서야 목사님이 수술을 받았고 빨리 회복되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암이란 오래 괜찮다고 해놓고도 급작스레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던 터라 한편은 신경이 쓰였다. 그동안 사절돼 온 면회가 허락될 것 같지 않자 장년부 교사들은 2월초 어떻게 심방을 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2월 둘째주 오후에는 목동 목사님자택으로 심방을 할 수 있었다.

(4면에 계속)

▶기도문

조국이며 안심하라

하영수(집사, 스테반회 간사장)

1997년 3월1일 오전 9시

원주 제2가나안농군학교

고 김용기 장로가 늘 기도하시던 기도굴에서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 가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내용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곳에서 외로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던
신앙의 선배의 체온을 느끼면서
서울교회의 스테반회 형제들이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음은 믿음의 선진들이
깊은 산 속에서, 먼 바다끝에서, 골방에서
희생의 기도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덕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한 잠을 자게 되었으나
사치와 향락으로 범치는 늘어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
이곳을 찾는 성도의 수는 해마다 줄어
방방마다 먼지만 쌓인다는
이곳 높은 주의 종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정치·교육·경제를 이끄는 자 모두가
촛불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게 하시고
지역간 계층간의 골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먼저 저희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기다리는 구국의 일념으로 사셨던
신앙선배의 체취를 느끼면서
3·1절의 감격을 안겨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바람 불어도 샘물마다 잘 솟고
온갖 꽃 다 저가도 꿀물은 흐르며
하나님 축복은 끝까지 참는 자 주신다.

- 고 김용기장로 기도문 중에서 -

(3면에서 계속)

그런데 웃으시며 맞으시는 목사님을 보고 우리는 그만 한편 실망스러운 (죄송하지만 사실이다) 반가움을 느꼈다. 소문대로라면 헬썩한 얼굴에 피골은 상접하고 머리털이 빠져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상상이 너무나 빗나갔기 때문이다. 흥조를 띤 동안의 얼굴에 미소까지 머금은 목사님은 성급하게도 당장 다음 주일 강단에 서고 싶으시다는 강한 의욕까지 보이셨다.

3년 전 장을 정밀검사했을 때는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번에 병원에서 막상 수술을 해보니 암이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 했다. 혹 현대의학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당장 입원하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믿지 아니하셨다고 했다. "목사인 내가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아픈 곳도 없고 특별한 죄가 없는데..." 하는 교만까지 고개를 들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다.

상대는 중기를 넘은 말기 직전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든 어서 나오셔서 강단에 서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깊은 감사의 기도로 그 집을 나섰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사 그로부터 3주만에 목사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해 장년부 강단에 다시 서시게 되었고 그간의 사정을 밝히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셨다.

처음 수술이 예정되었으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예비검사가 필요하여 수술을 연기한 것이 개복했다가 다시 덮었다는 소문으로 와전됐던 것이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려 실려가면서 목사님 그 누구건 한낱 흠으로 빛은 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과 지금까지 목사라고 남한테만 성경을 가르칠 생각에 집착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의례적이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 처절하리

만치 진실하고 깨끗한 기도로 변하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을 직접 만난듯이 느끼셨다고 하셨다.

머리 속에만 맴돌던 하나님,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생명의 주이심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체험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을 받게 되었다. "이제 병든 사람은 김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다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라고 광고한 장년부 부장인 김광신 장로님의 끝맺는 말에 장년부 집회실은 참석한 모두의 감사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후 교실에서 다과를 들며 우리는 마치 다시 살아온 자를 맞은 것같은 정담을 나누었다. 평소 말수가 적은 권사님도 "분위기가 왜 이리 따뜻한가" 하셔서 모두 웃었다. 목사님이 건강관리를 못하신 셈인데 고생하신 사모님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신 듯 밝게 보이셨다.

▶ 제 8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①

강의와 강사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의 강의제목 및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개강예배 세계선교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 - 이종운 (서울교회 목사)
- 강의① 한국 교회사 개요 - 언더우드 (연세대 명예교수)
- 강의② 교회개선의 성경적 원리 - 이종운 (서울교회 목사)
- 강의③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 조종남 (전 서울신대 학장)
- 강의④ 평신도 전도운동 - 킨슬러 (미국 장로교 선교사)
- 강의⑤ 교회성장을 위한 다락방 운동 - 은준관 (연세대 교수)
- 강의⑥ 한국 교회의 기도생활 - 손영준 (MTI 원장)
- 강의⑦ 전도의 전략과 실제 - 이광순 (장신대 교수)
- 강의⑧ 한국교회 성장의 사회적 배경 - 이원설 (한국기독교교회연맹 이사장)
- 강의⑨ 교회개신과 성장의 실제 - 이종운 (서울교회 목사)



▲ 사진은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의 강의 광경

- * 강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 김치 신학세미나의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언어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 모든 참가자들이 강의와 토론,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자국 복음화 전략회의(National Strategy)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보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11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997년 2월 10일(월) ~ 3월 24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개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FAX, 512-1225)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기간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우리교회 교육을 위해
3.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제 8차 김치세미나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